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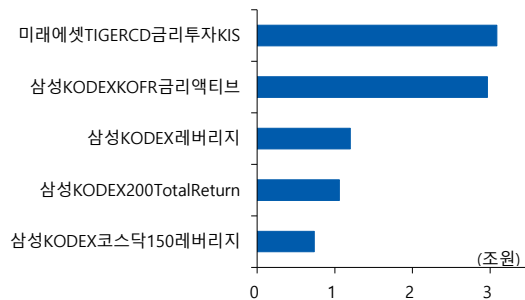


2022년 히트펀드

1. 2022년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 자금 유입 최대

- 연도별 자금 유입 상위 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나타냄. 2015년부터는 혼합형펀드, 자산배분펀드 등 중위험·중수익으로 간주되는 금융상품의 선호가 높았음. 2022년에는 금리관련 ETF가 자금 유입 상위 차지
-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관련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음.
- 전기차와 반도체 등 성장 산업 관련 ETF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2022년 금리 관련 상품과 레버리지, 성장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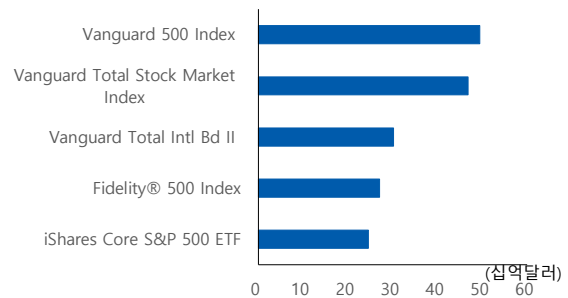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글로벌 펀드시장에서는 주식 대표 펀드로는 자금 유입

-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채권펀드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펀드는 2022년 2분기부터 자금이 빠져나갔음.
- 2022년에는 'Vanguard 500 Index', 'Vanguard Total Stock Market Index' 등 주식 대형펀드로는 자금 순유입
- 자금 유입 상위 펀드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펀드의 비중이 압도적.

2022년 1월~11월까지 주식 대표 펀드로 자금 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2년 국내에서는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 자금 유입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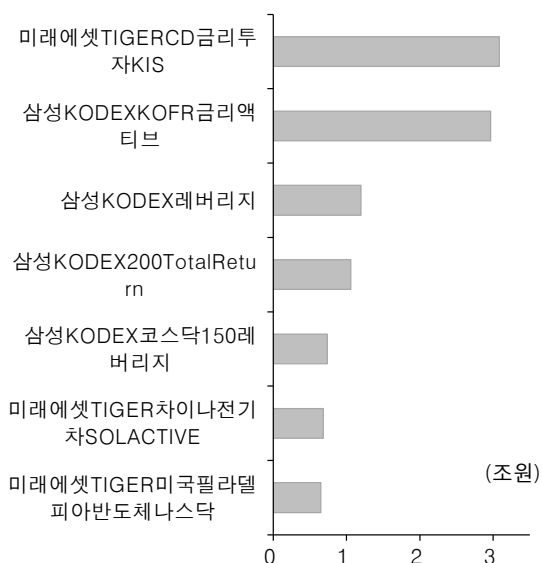
연도별 자금유입 상위 펀드를 살펴보면,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의 방향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는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삼성 KODEX200', '미래에셋TIGER200' 등 ETF가 설정액 순증감 1위로 올라섰다.

2015년부터는 혼합형펀드, 자산배분펀드 등 중위험·중수익으로 간주되는 금융상품의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 보인다.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인버스ETF로 자금 유입이 컸다. 2017년에는 '신한BNPP커버드콜'이 1조원 넘게 설정액이 순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보다는 채권 관련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렸다.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기금리ETF가 2022년 히트펀드의 1,2위를 차지하였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관련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성장 산업 관련 ETF가 히트펀드 6위와 7위를 차지하였다.

[차트1] 2022년 금리 관련 상품과 레버리지, 성장산업 등이 관심을 받음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MMF 제외

[차트2] 연도별 히트 펀드(설정액 순증 기준)

연도	펀드명	유형	연간 순증감액 (억원)
2016	삼성KODEX인버스	리버스마켓	10,400
2017	신한BNPP커버드콜	자산배분	10,949
2018	삼성KODEX 레버리지	인덱스주식	11,480
2019	우리하이플러스채권	일반채권	14,097
2020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2X	리버스마켓	80,730
2021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2X	리버스마켓	29,340
2022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	국내특별자산	30,854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MMF 제외

2. 글로벌 펀드시장에서는 주식 대표 펀드로는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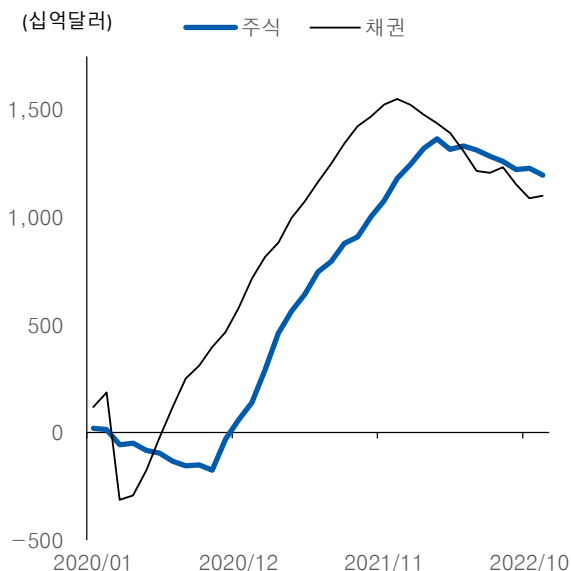
2022년 미국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면서, 채권펀드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금이 빠져나갔다. 주식펀드는 2022년 2분기부터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에는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 상황으로 상반기까지는 채권펀드로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이 영향으로 'Vanguard Total Intl Bd II Idx Fd', 'Goldman Sachs FS Government' 등 채권펀드가 자금 유입 1~2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에는 'Vanguard 500 Index', 'Vanguard Total Stock Market Index' 등 주식 대형펀드로는 자금이 순유입되었으며, 꾸준히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자금 유입 상위 펀드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펀드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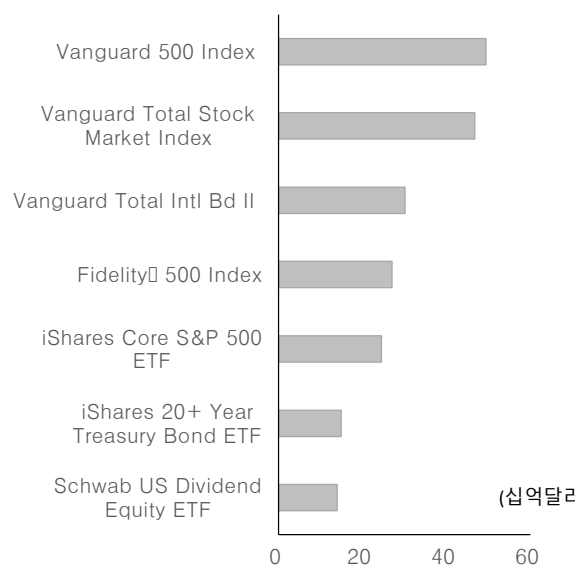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식펀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등의 투자 심리는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트3]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채권펀드와 주식펀드 모두 자금 유출.(누적 자금 순유출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022년 1월~11월까지 주식 대표 펀드로 자금 유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